

원작자도 모르게 공공미술 그래피티 벽화 철거

구현주 '파라솔과 어린이' 등 대인시장 공공미술프로젝트 3년간 유지보존 이전에 철거 "작가 창작물 쉽게 훼손 불쾌"

광주 동구 대인예술시장 내 공공미술 벽화 작품이 원작자 모르게 다른 그림으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18년 차 그래피티 전문 화가 구현주 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광주 시 주관 대인예술시장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작업한 벽화 작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면 철거되고 새로운 작품으로 대체됐다는 연락이었다.

광주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인예술시장(남도달밤야시장 개회)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구 작가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대인예술시장 운영단체 '안다미로'와 협의 후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프로젝트는 아티스트로서 시장 내 공공미술을 창제하는 내용으로, 그는 정승원 작가와 함께 대인예술시장 주



대인예술시장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완성된 18년 차 그래피티 전문 화가 구현주 씨의 작품(왼쪽)이 원작자 모르게 철거, 다른 작품으로 대체됐다.

작품 벽체에 △파라솔과 어린이 △회적목마 △Time-collabo 등 3개 작품을 완성했다.

당시 구 작가가 체결한 작품 유지·보존을 위한 책임 관련 계약 내용은 '3년 일몰제'다. 즉 작품 설치 완료 이후 3년부터 작품에 대한 권리가 시장상인회로 이관돼

작품 철거가 임의로 가능하지만, 구 작가 작품은 3년이 채 되기 전 지난해 12월 작품이 삭제되고 다른 벽화 작품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 사이 광주시 공모를 통해 대인예술시장 운영단체가 변경됐는데, 해당 계약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새로운 프

로젝트가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주차장 벽체에는 똑같은 벽화 형태로 다른 작가의 작품이 그려져 있다.

구 작가는 "광주시나 사업 담당자 통해서 철거에 대한 사정을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이미 작품이 전면 삭제된 이후 나중에야 지인을 통해 '작품이 없어졌다'고

소식을 들어 당혹스러웠다"며 "원작자와 상의도 없이 작품을 훼손했다. 그래피티 작품을 광고 부작 출력물 수준으로 취급당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내용 이전에 작품 존치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인예술시장 운영단체를 선정하다 보니, 계약 기간 중간에 운영단체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앞으로 주관단체로서 공공미술과 관련된 내용에 노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인예술시장 운영팀인 '일도시연구소' 관계자는 "작가의 작품을 임의로 훼손시킬 의도는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원작자에게 사과를 전했다"며 "벽화가 그려진 벽체가 훼손되고 사유지 문제 등과 겹치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벽화를 수정해야 했다. 계약 내용을 알았다면 미리 연락을 취했을텐데, 이전 예술시장 운영팀으로부터 개인정보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동구관광 SNS서포터즈 모집

내달 7일까지 동구예술여행센터 관광명소·먹거리 등 콘텐츠 제작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동구예술여행센터가 동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정보를 알리기 위한 '동구관광 SNS서포터즈'를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동구예술여행센터는 2024년 전담여행사, 동구관광 SNS서포터즈, 구석구석 동구예술여행, 예술여행정보도서관 조성 등 광주동구의 지속가능한 예술관광의 일환으로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관광 SNS서포터즈'는 6월부터 11월까지 동구의 관광자원을 취재하고 축제·행사 등을 SNS를 통

해 홍보하는 활동으로,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선발된 이들은 동구관광과 관련된 취재활동을 하며 각종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것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동구관광 SNS서포터즈'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gdctf.or.kr>) 또는 광주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동구예술여행센터(☎070-4107-2237)에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가톨릭박물관 환경보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내달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광주가톨릭박물관은 6월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행동 등을 알아본다. 흔히 쓰다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활용해 '나의 작은 지구 및 생태계'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은 6월 한 달간 매

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차례 운영된다. 체험비는 3000원이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기관, 단체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기수마다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체험을 신청했다면 일회용 투명 컵(P.P.컵)을 준비물로 챙겨와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가톨릭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gicmuse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존재의 본질 탐구하는 '관찰자로부터' 신호운 개인전

내달 9일까지 예술공간 집 '허상과 실존 사이 형상' 등

예술공간 집이 본질에 대한 목직한 물음을 던져온 신호운 작가의 개인전 '관찰자로부터'를 오는 6월 9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스스로 '관찰자'라 상징한 작가의 시선을 더 세심히 엿볼 수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신호운의 전시다.

전시된 작품은 총 20여 점으로 2010년 제작한 평면작품인 '수상한 꽃' 시리즈들부터 올해 2024년 제작한 근작들까지 불상, 피에타, 동물, 가면 등 그간의 신호운 작가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

특히 "There is no essence(본질은 없다)" 연작들은 신호운 작가의 가장 대표적 시리즈들로 불상과 피에타 등 종교를 상징하는 성상들에서 존재의 본질을



신호운 작 본질은 없다. 예술공간집 제공

탐색해 가는 작가의 특별한 시선이 더 확고하게 드러난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형상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각도를 달리하

여 측면으로 돌아가면 입체적 형상이 다시 나타난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형상들은 마치 비어있고 짙어 있는 듯 허상과 실존 사이의 형상을 넘나들며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호운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조소전공)를 졸업했다. 2018년 루카 종이비엔날레 평생공로상, 광주미술상, 신세계미술상대상, 대한민국 종이예술대전 대상, 하정웅 청년작가 선정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전시와 함께 신호운 작가의 작품세계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도 열린다. 오는 30일 오후 2~4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예술공간 집은 동구 장동에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망자를 기억하며 '진혼'...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내달 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베르디 레퍼토리 중 대작 '레퀴엠'

광주시립교향악단의 384회 정기연주회가 '鎮魂(진혼)'이라는 부제로 오는 6월 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르디 레퍼토리 중 가장 대작으로 꼽히는 레퀴엠을 연주한다. 광주시향 흥석원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양승미, 테너 이범주, 베이스 송일도가 출

연한다. 또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합창단과 순천시립합창단 등 190여 명의 연주자들이 출연하며 대작에 걸맞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베르디 레퀴엠은 그의 종교음악 중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오페라의 극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 '망자의 오페라'라고 불리기도 한다. 낭만주의의 거장이자 베르디가 존경하던 음악가 로시니와 만초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1874년 완성한 웅장한 규모의 곡으로 네 명의 독창자, 혼성 4부 합창,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필요

하며 총연주 시간은 약 90분에 달한다.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풍부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웅장한 하모니로 선보여질 '진혼의 날'은 광고, 영화 등에서 자주 사용되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향의 384회 정기연주회 '鎮魂(진혼)'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교생부터 입장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